

# 民謠 研究의 몇 問題

許 椿 \*

目	次
I. 緒 言	마. 分類論
II. 本 論	바. 律格論
가. 研究方法	사. 韓國民謠의 特質
나. 用話定立	아. 現代의 民謠
다. 概念·範疇論	자. 民謠史
라. 發生論	III. 結 言

## I. 緒 言

口碑文學의 여러 분야 중 民謠는 蒐集·整理를 통한 民俗誌의 작성이나 연구 성과에 있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民俗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는 행정력을 동원한 조선총독부가 植民統治의 基礎資料 蒐集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섰으며, 여기에 참가한 사람 중 高橋亨은 民謠에 관해서도 數

\*전임강사

篇의 論考를 남겼다. 또 市山盛雄은 〈朝鮮民謠의 研究〉(1927)를 單行本으로 내기도 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孫普泰, 金東煥, 金在喆, 李在郁, 天台山人, 金思燁, 宋錫夏 등이 民謠에 관한 斷片的인 論考를 발표하였다. 民族文化運動의 일환으로 벌인 民謠 蒐集作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朝鮮童謠集〉(嚴弼鎭, 1924)을 필두로 〈朝鮮口傳民謠集〉(金素雲, 1933), 〈民謠集〉(趙潤濟, 1935), 〈朝鮮民謠選〉(林和, 1939), 〈朝鮮民謠集成〉(金思燁·崔常壽·方鍾鉉, 1948), 〈朝鮮의 民謠〉(成慶麟·張師勛, 1949) 등이 속속 출간되었다. 최근의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에 이르기까지 많은 資料集과 研究 論著가 발표되고 있으나 再考해 봐야 될 점들이 있어, 이를 〈朝鮮民謠研究〉(高晶玉, 1949)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原始藝術로서의 民謠 一般과 庶民文學으로서의 朝鮮民謠”라는 副題가 붙어 있는 〈朝鮮民謠研究〉<sup>1)</sup>는 해방 후 民謠 研究의 不毛地에 學的 體系를 세워 출간된 본격적 연구서로서<sup>2)</sup> 資料集으로서의 양면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金素雲이 民謠 資料를 集大成했다면 高晶玉은 研究의 이론을 세웠다고 하겠는데, 그 자신도 “... 一般的으로는 民俗學의 對象밖에 되지 않는 民謠를 當々히 朝鮮文學의 王座로 끌어 올렸다.”(高, P. 9)고 자부하고 있는, 民俗學 研究 一期(1920-1945, 黎明期)<sup>3)</sup>의 대표적 학자이다. 자신의 嶺南 民謠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책은 시대에 따른 변천에도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아직 이와 대치하는 개론서가 나오지 않았다<sup>4)</sup>는 평

1)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이하 “高”로 略함)

2) 이전에 두 권의 연구서가 출간되었으나 전반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로는 미흡한 감이 있다.

周王山, 〈朝鮮民謠概論〉, 東洋무란트社, 1947.

成慶麟·張師勛, 〈民謠와 鄉土鄉器〉, 尙文社, 1948.

3) 金泰坤, “韓國의 學譜(民俗學界),” 大韓日報, 1972. 11. 20字.

民俗學 研究를 四期로 나누고 先驅者로는 一然을 꼽고 있다.

4) 趙東一,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社, 1980. p. 297.

까지 받고 있는데, 啓蒙性보다 論證을 위주로 한 점과 口碑傳承의 史的 還元을 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本稿에서는 순차적 검토를 하지 않고 필자가 추출한 문항별로 살펴 보겠다. 즉 民謠 研究 方法論, 用語, 民謠의 概念·範疇, 民謠의 發生, 分類, 律格, 特質, 現代의 民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끝으로 民謠史 敘述의 問題點을 論하겠다. 그리고 부분부분 代案을 제시하기도 하겠지만, 우선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爭點을 抽出하는 선에서 그치려 한다.

그외 〈韓國民謠史〉(任東權), 〈口碑文學概說〉(張德順 外), 〈韓國民謠研究〉(任東權),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鄭東華), 〈濟州島 民謠研究〉(金榮敦), 〈한국 노동 민요 연구〉(金武憲)<sup>5)</sup> 등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 Ⅱ. 本 論

### 가. 研究 方法

먼저 高晶玉의 民謠觀을 보면 “... 民謠 自體는 어디까지나 文學·音樂·舞蹈 等の 高次的 獨立 藝術을 이룰테면 分家해 내어 놓고 自身은 沒落한 宗

---

5) 任東權, 〈韓國民謠史〉, 文昌社, 1964.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口碑傳承의 韓國文學의 考察—, 一潮閣, 1971.  
(民謠 執筆은 趙東一인 듯)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 —特質과 發達을 中心으로—〉, 一潮閣, 198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조약돌, 1983.

金武憲, 〈한국 노동 민요 연구〉, 延世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이하 각각 “任史, 張, 任究, 鄭, 金榮, 金武”로 略함)

家와 같은 文明 속의 一殘存物이다”(高,序, p.2), “民謠는 오직 民俗學의 對象인 것이다”(高, p.7)하여 고정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民謠를 民俗學의 對象이라고 단정해 버리면서도 실제의 작업은 文學的 研究가 될 수밖에 없었다. 民謠는 美的 價値를 지닌 言語藝術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民謠 研究와 蒐集이 民族意識의 각성이라는 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民族文化의 保全策”(高, p.1)이나 “民族生活史의 一面을 밝히는 것”(任史, pp.3-4)에 연구 목적이나 의의를 두려 함은 온당치 못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는 獨立科學로서의 民俗學이라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바, 다음의 지적은 民俗學의 개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일 영국 민속학의 主潮인, 근대화 이전의 原始殘存文化의 인류학적 비교 연구로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학문적 當爲를 갖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독일계 민속학처럼 민족의 基盤文化의 총체적 연구로 본다면 사회과학의 다른 분과와의 관계가 문제된다.<sup>6)</sup>

또 외국 문학 이론의 공식적 적용을 止揚하고, 民謠에 反映된 意識이나 生活相 등을 추출하는 研究와 더 나아가 民謠 자체의 文藝美를 파악할 수 있는 深層的이고 包括的인 藝術 理論의 定立이 요구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方法論에 얼마일 필요는 없지만 方法論이 確乎하지 않은 研究는 無用에 가깝다고 하겠다. 현재 文獻的 方法에서 現場論的方法까지 두루 원용되고 있는데, 어떤 方法을 적용하든, 民謠 研究時 빠지기 쉬운 함정인 가치 평가에서의 絕對主義的 觀點을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

6) 沈雨巖, “論著를 통해 본 民俗學 研究 30年,” <讀書生活>, 讀書生活社, 1976, 2月號, p.104.

民謠는 辭說·機能·唱曲의 三部門이, 結合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어울어져 이루어진다. 文學的·民俗的·音樂的인 것이 같은 차원의 분류인지는 再考해야 하겠지만, 辭說 중심의 研究가 주가 되어 온 상황이므로 機能과 唱曲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民俗이나 音樂과의 共同 研究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덧붙여 民謠 蒐集에 관해 언급하겠다. 古代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爲政者의 功利的인 民謠에의 關心은 <詩經>에 歷々히 나타나 있다.”(高, p. 3) 文字 이전의 우리 전승 민요들도 <三代目>에 기록되었을 것이나 아쉽게도 佚傳되었다. 民謠 蒐集 方法은 世宗祖 朴煥의 上訴文과 禮曹啓文에 제시되어 있으니, 舊樂을 詳悉하여 自進해서 바치면 官職을 주고 各道州縣에 令을 내려서 民俗歌謠를 蒐集하자고 하고 있다.<sup>7)</sup> 이 계획이 큰 成果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옛 文獻 記錄에서 民謠(의 痕跡)를 발견할 수 있다. 研究 初期엔 대개 間接 조사를 하였으나 요즘은 직접 調査를 통해 자료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더 바람직한 일은 辭說의 採錄 뿐 아니라 採譜 作業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며 이 점은 音樂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民謠 各篇에는 그 民謠가 불리는 地域性이 짙게 깔리는 것이 民謠의 屬性(金榮, p. 5)이긴 하지만, 일정 지역의 특수성을 밝힌 研究나 辭說 중심의 연구는 이들이 總合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큰 의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民謠 研究는, 民謠의 文學的 形象性과 民謠에 나타난 思想 探究, 나

7) … 譜法尙存 其歌詞舊本 意必有傳寫 私藏者焉 願令中外 悉求我朝舊時歌曲 如有詳悉本 自告進呈者 賞之以職 則舊樂之缺 庶可填補矣(《世宗實錄》卷四七 十二年 庚戌 二月)

… 獨民俗歌謠之詞 無採錄之法 實爲未便 自今依古者採詩之法 令各道州縣 勿論詩章俚語 關係五倫之正 足爲勸勉者及其間 曠夫怨女之謠 未變風者 悉令搜訪 每年歲抄採上送 從之(《世宗實錄》卷六一 十五年 癸丑 九月)

아가 지배 세력, 비판 세력, 잠재 세력의 서로 다른 세계관 파악과 그 의미 해명 그리고 民謠 자체의 文藝美 抽出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 나. 用語 定立

概念과 연관되는 문제이며 民謠論에 限한 현상은 아니지만, 用語의 사용이 論者마다 달라서 統一이 요구된다. 몇 예를 들어 보겠다.

‘辭說, 機能, 唱曲’은 “리듬, 동작, 말(文句) (高, pp.19-25), 歌詞(張, pp.79-82), 가락”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民謠 分類時 狹意의 民謠를 가리키는 ‘純粹民謠’<sup>8)</sup> (高, p.43)를 “本源的 民謠” (金榮, p.6)라 하기도 한다. 歌唱 方式은 ‘先後唱, 交換唱, 獨唱(齊唱)’ (張, p.83) 등이 있는데, “先唱衆答型, 交換唱, 獨唱, 混合唱(獨唱-合唱) (鄭, p.95), 交唱(金榮, p.40)”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들은 內容의 차이는 없으므로 적절한 용어로 統一되었으면 한다.

‘後斂’은 “餘音, 받음소리, 뒷소리, 葉, 後小節, 口音, 調律素(詞)” 등과 同義語로 쓰이는데, 다른 것들이 기능을 표현한 명칭인데 반해 後斂은 형태적 특성을 표현한 용어라는 概念上의 문제가 있다. (鄭, p.48) 後斂이 일반화된 말이고 ‘斂’을 대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學術 用語의 정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初斂, 中斂, 後斂” (鄭, p.48) 등으로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餘音과 後斂은 ‘받음소리’ 여부와 ‘斷片性’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구분하는 것 (鄭, p.48) 보다는 後斂으로 포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韻律’은 ‘律動’과 ‘律格’의 포괄적 개념인데, 律動이 抒情的 발휘의 根源的 要因이 되는 音聲의 활동이라면, 이것의 규칙적 表現 形態가 律

---

8) 高晶玉은 抒情民謠와 叙事民謠를 包括하는 概念으로 썼다.

格이라 하겠다. (鄭, p.20) 韻과 律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韻律論의 主對象은 長短・高低・強弱을 속성으로 하는 律格이므로 ‘律格’이 더 精確한 用語일 것이다.

다음은 ‘歌, 謠, 노래, 소리’에 관해서다. 高晶玉은 “노래 이름을 붙임에 있어 慣習上 或은 語調上 「謠」字 代身 「歌」字을 쓰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嚴密히 따지면 不當한 用法인 것이다” (高, p.102)고 하며 “「謠」字는 謠言・謠傳과 같이 使用되어, 巴야흐로 民謠의 謠의 本質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소頁) 하여 ‘謠’를 쓰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류에서는 “보리타작노래, 모심기노래 (移秧歌), 타령, 九九歌, 한글풀이 …” (高, pp.96-486)처럼 ‘歌, 謠, 노래’를 混用하고 있으며 대체로 “移秧歌, 김매는노래, 베틀요 …”<sup>9)</sup> (任究, pp.40-52), 모심기노래 (移秧謠), 베틀노래 …”<sup>10)</sup>처럼 ‘謠(노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맷돌 노래, 방아 노래, 따비질 노래, 밭 가는 노래 …”<sup>11)</sup>처럼 ‘노래’를 주로 쓴 경우도 있고, “바느질소리, 불레소리, 삼삼기소리 …” (金武, pp.50-52)처럼 ‘소리’로 통일한 경우도 있다.<sup>12)</sup> “놀다”에서 파생된 ‘노래’는 유희성이나 오락성이 근원이며, ‘소리’는 우리 선조(민중)들이 “소리한다”고 써 왔을 뿐 아니라 자연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며, 바람소리, 새소리 등 미천한 민중과 관계가 깊은 육성이고 民聲이기 때문(金武, p.20)이라고 金武憲은 ‘소리’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소리’가 더 타당한 用語라고 생각한다. ‘소리’는 勞動과 관계 깊은 民謠의 개념에 더 가깝고, 현지의 노래 이름이 대개 ‘소리’

9) 任東權, <韓國民謠集> I-VI, 東國文化社・集文堂, 1961-1981.

10) 徐元燮, <鬱陵島 民謠와 歌辭>, 螢雪出版社, 1982.

11)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1965, (1984. 重版).

12) 鄭東華도 ‘民謠’에 대한 우리말은 ‘소리’가 옳다고 하였으나 (鄭, p.9) 실제 작업에서는 “歌, 謠, 노래, 소리”를 混用하고 있다.

라는 점이다. (따비질소리, 밧가는소리, 흑병에 두드리는 소리, ㄹ랫놀래, ㄹ래ㄹ는 소리 … (金榮, p.25)) ‘謠(노래)’가 굳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再考를 요하는 사항이다.

“概念·範疇, 分類”에서 後述하겠지만, ‘童謠’를 ‘讖謠’의 뜻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말이 도리에 적절하여 참서따위와는 아주 다르니 대장부의 老成한 意趣를 어린아이도 노래로 부른 것”, “宮內的 여러가지 일들을 당시 사람들이 풍자한 말”<sup>13)</sup>이라는 童謠에 관한 설명을 보면, 朝鮮朝에는 童謠는 곧 讖謠의 뜻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童謠, 讖謠를 글자 그대로의 뜻대로 써서 이 둘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讖謠를 “政治民謠”<sup>14)</sup>라고 한 예도 있으나, 親熟도와 다른 用語와의 衡乎性 그리고 그 意味의 包括性を 생각해 볼 때 ‘讖謠’를 쓰는 것이 좋을 듯싶다.

#### 다. 概念·範疇論

高晶玉은, “…被侵略民族의 文化란 實로 悲慘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朝鮮文學이 이 悲慘한 後者의 標本이니…”(高, p.35)하며 “…根本的으로는 依然히 言語란 文學에 있어서 生命의 核心이다. …如上의 意味에서 나는 아무런 特殊한 新局面도 認定할 수 없는 漢文學은 이를 敬遠할 것이다. …[作者의 有無가 文學과 非文學을 가려 내는 標準이 될 수 없으므로] 口傳되어 오다가 어느 時期에 文學으로 固定된 것이 非文學이라면 民謠 外에도 多量의 非文學을 認定할 수밖에 없다.”(高, pp. 36-37)고 하고 있다. 民謠 같은 口碑文學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으며, 民謠

13) 童謠自康衢始 然切切道理之言 殊異乎符讖 文夫老成之意 而童幼亦習而歌之也 (〈星潮先生傳說〉, 卷二二, 經史門) 余聞閭里童謠語無根因傳播一世 或有知根者曰 皆有宮內一時之說話也(全書, 卷九, 人事門)

14) 黃正洙. 〈韓國 政治民謠 研究〉, 延世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역시 被侵略民族의 실움을 나타내는 弱小民族의 문학이라는 것 그리고 漢文學은 우리 문학의 範疇에 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民謠는 被侵略民族의 실움보다 오히려 被侵略階層의 실움을 표현한 것이 많고, 한글 통용 이전 또 그 이후에도 民謠는 漢文으로 기록되었다. 또 東洋의 共同文語는 漢文이었으므로 이를 전혀 度外視할 수는 없거니와, 民謠의 屬性上 기록되어 전하는 것이 드물다는 실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高晶玉은 한글 창제 이전의 가요 중 〈迎神君歌〉, 〈兜率歌〉(歌詞不傳), 〈薯童謠〉, 〈風謠〉, 〈處容歌〉, 〈海歌〉, 〈井邑詞〉 그리고 高麗歌謠의 殆半 以上을 民謠로 보고 있는데,<sup>15)</sup> (高, pp.29-30, p.49) 高麗歌謠를 “그 大部分이 口傳되어 모든 것이 李朝에 들어 비로소 固定된 것 이란 點, 그 內容이 情恨에 치우치고 있는 點, 歌詞가 二·三聯에 不過하게 짧고 거진 例外없이 後敍이 붙어 있는 點”(高, pp.30-31) 등을 들어 民謠로 보고 있다.

各篇을 論할 필요는 없겠으나, 〈會蘇曲〉, 〈筵篥引〉, 〈黃鳥歌〉, 〈迎神君歌〉, 〈兜率歌〉(歌詞不傳), 〈海歌〉 등을 民謠로 보는 데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高晶玉은 〈禱千手觀音歌〉, 〈兜率歌〉(月明), 〈彗星歌〉 등을 民謠(宗教民謠)로 보고 있고(高, p.33), 任東權은 〈薯童謠〉, 〈風謠〉, 〈獻花歌〉, 〈禱千手觀音歌〉, 〈處容歌〉 등을 民謠로 꼽고 있으며 〈禱千手觀音歌〉는 巫歌와 같은 廣義의 民謠라 하고 있다.(任史, pp.33-42) 또 〈薯童謠〉와 〈風謠〉만을 民謠로 인정하는 등<sup>16)</sup>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高麗歌謠에 관해 高晶玉은 “麗謠의 大部分은

15) 설명의 편의상 歌名은 '高'를 따름. 이하 같음. 高晶玉은 〈筵篥引〉, 〈黃鳥歌〉, 乙巴素作 時調 등은 後人의 擬作이 確實하다(高, p.29) 하고, 〈薯童謠〉, 〈風謠〉等도 唐樂의 影響을 입어 새로 形成되기 始作한 新羅 貴族階級の 樂律에 맞추어서 改作된 노래이므로 現存 鄉歌는 結局엔 다같은 장르의 그 當時 創作歌謠(高, p.52)라고 설명하고 있다.

純粹한 民謠거나 不然이면 個人創作의 民謠化한 노래이며 … 그걸 記錄한 知識人에 依해서 洗練·修飾된 것일 것이다.” (高, p.40)하여 대부분이 民謠거나 文字 定着時 윤색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麗謠를 民謠로 보고 있는데<sup>17)</sup> (任史, p.59, 鄭, pp.227-231), 鄭炳昱은 〈雙花店〉을 분석하면서 “… ‘별곡’ 즉 고려가요는 지금까지 속요라고 생각해 온 바와 같은 民謠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가(雙花店—筆者註)는 고려시대의 속요가 아니라 훌륭한 창작시였다는 단안을 내릴 수 있을 줄로 안다.”<sup>18)</sup> 면서 麗謠를 個人의 創作詩로 보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後代에 文字로 정착된 옛 歌謠에 대해서는 異見이 많다. 〈筵篥引〉을 비롯한 上代歌謠는 背景 說話나 표현 기법을 볼 때 民謠임이 確實한 듯하다. 〈普賢十願歌〉를 除外한 鄉歌는, 作品別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나 作者가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月明, 希明, 忠談”처럼 作者名 자체가 說話의인 점<sup>19)</sup>을 생각하면 民謠이거나 民謠에서 變形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麗謠를 “民謠의 노래의 定着, 知識層의 創作詩, 宮中歌樂의 歌詞” 등 여러가지로 보고 있는데, 〈雙花店〉은 民謠의 改刪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여하튼 麗謠가 民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은 사실이나, 〈高麗史〉, 〈樂學軌範〉, 〈樂章歌詞〉 등이 朝鮮朝 初·中葉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해 보면 記錄 자체를 輕視한다든지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를 들어 民謠로 단정하는 것은 좀 성급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鄉歌·麗謠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을 듯한데 上代歌謠라 해서 충분한 證據를 하지 않고 民謠

16)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社, 1958. (初版, 博文書館, 1937.) pp. 51-52.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p. 93. 等.

17)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1, pp. 60~61. (初版, 1963)

李泰極, 〈時調概論〉, 새글사, 1974, p. 250. 等.

18) 鄭炳昱, 〈國文學散藁〉, 新丘文化社, 1960, p. 123.

19) cf. 崔喆, 〈향가의 본질과 시적 상상력〉, 새문社, 1983.

에 편입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民謠를 狹義·廣義로 나눈다면 廣義의 民謠에 들 巫歌, 原始歌謠, 俗歌(雜歌, 노래가락) (鄭, p.14)의 처리 문제가 있다. 우선 民謠를 狹義·廣義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부터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民謠의 概念을 먼저 살펴 보고 詳述하겠다. 高晶玉은 ‘民’이란 漢字에서 民謠의 概念을 추출하고 있는데 個에 對한 民, 君·官에 對한 民, 國에 對한 民으로 字義를 풀이하고 있다. (高, pp.10-14) 즉 民謠 제작자의 문제, 享有 계급의 문제, 국가가 아닌 민족의 노래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統治階級과 民衆의 관계를 時調와 民謠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民衆의 純眞한 感情이 虛飾없고 技巧없이 말로 하여진 노래”<sup>20)</sup>; “一他民族의 自然的 共同心音의 表現”<sup>21)</sup> 등 막연하나 大同小異한데, 대체로 노래인 것, 口碑傳承인 것, 非專門인 民衆의 노래이며 그 音樂的·文學的 性格도 民衆의 일 것, 생활상 필요에서 唱者 스스로가 즐기는 것(張, pp.75-76)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巫歌(神歌), 佛歌, 俗歌(雜歌)등을 民謠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보자. 먼저 巫歌(神歌), 佛歌 같은 民間信仰歌가 非專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雜歌는 文學的으로는 時調型과 동일하며 歌曲이나 時調와는 音樂的으로만 구별되는데 民謠·歌辭의 하위 범주 또는 독립 장르로 보는 등 異見이 많다. 高晶玉은 雜歌를 流行歌에 포함시켜 民謠로 보았고(高, pp.43-44), 독립 장르를 주장하는 鄭在鎬는 雜歌의 특성을 民謠와 대비하여 다섯 가지로 들고 있는 바,<sup>22)</sup> 노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전문

20) 金志淵, “朝鮮民謠에 對하여”, 〈朝鮮〉 141號, 1929, 7月.

崔喆·薛盛瓊 編, 〈민요의 연구〉, 正音社, 1984. 再引.

21) 周王山, 前掲書, p. 28.

22) 鄭在鎬, 〈韓國雜歌全集〉 I - IV, 啓明文化社, 1984.

附 “雜歌攷”(〈民族文化 研究〉 高麗大, 6號, 1972.) p. 46.

적 가객(唱者)의 노래라는 점, 민요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辭說의 내용, 한자 숙어나 한시문을 써서 소박미가 사라진 점, 인생무상이나 경치 등을 주로 읊은 내용의 차이, 형식의 다양성 등이다. 巫歌, 佛歌, 俗歌(雜歌)는 民謠와 他장르와의 경계선에 있거나 두 가지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共有하고 있는 데서 개념 규정의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데 모든 문학 장르는 상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곳에 소속시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또 原始歌謠(鄭, p.14)를 廣義의 民謠에 넣는 것도 再考해야 할 것이다. 長篇敘事民謠라 할 수 있는 譚歌(高, p.13)(Ballad, Story Song)는 오히려 판소리에 가깝다<sup>23)</sup>고 생각한다. 그리고 〈十杖歌〉, 〈小春香歌〉 등은 대단히 전문적이어서 民謠라 하기엔 약간의 문제가 있다.

童謠는 民謠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제외하거나<sup>24)</sup>(高, p.449) 廣義의 民謠에 넣기도 하는데, 童謠를 民謠와 分離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들은 民衆이 아니라는 논리때문인지 아니면 量的 寡少때문인지는 몰라도 童謠는 아동만이 부르는 것이 아니며<sup>25)</sup> 아동들이 成人의 노래를 그대로 부르지도 않거나와 民謠가 꼭 勞動과 결부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童謠는 당연히 民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童謠’는 分類에서 再論될 것이다.

## 라. 發生論

23)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續)〉, 宣明文化社, 1975. p.304.

24) 高晶玉은 總角謠(童男謠), 處女謠(童女謠)를 廣義의 民謠 中 第二期 民謠라 하여 截然히 구별하고 있으며 童男童女問答體謠밖에는 그들 獨自의 生活感情의 具體的 表現이 없고 또 實地로 그들은 成人의 노래를 그대로 부른다 하여 童男童女問答體謠, 童女謠만을 設定하고 있다. (高, p.449).

25) 高橋享, “朝鮮의 民謠”, 〈朝鮮〉 201號, 1932. 崔詰·薛盛環 編. 前掲書, p.70, 再引.

民謠의 발생은 기원의 문제인데 네 가지로 爭點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個人·集團製作說 또는 이의 折衷說.

둘째, 勞動·儀式·遊戱起源說.

셋째, 同時發生說, 前後繼起說.

넷째, 純粹民謠와 宗教民謠의 先後 問題.

대체로 個人보다 集團製作說을 支持하는 편인데 (高, pp.10-12), 高晶玉은 “朝鮮에 있어서도 歌辭·內房歌辭의 民謠化한 노래에는 個人說이, 그러고 純粹民謠에는 集團說이 妥當” (高, p.13)하다며 一面 折衷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個人이 創作하는 것과 널리 불리는 것은 다르며 共同으로 創作된 것이라는 의견은 推定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各篇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民謠를 共同作이면서 個人作<sup>26)</sup>이라고 보고 보는 折衷的 見解가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功利說과 享樂說 중에서는 勞動에서 起源을 찾는 功利說이 널리 認定을 받고 있다. (cf. 高, pp.18-19) 農謠의 起源을 祭天儀式에서 찾기도 하는데 (任究, pp.301-362), 굿을 하면서 부르거나 놀면서 부르는 노래도 끝 나 타났을 터이나 노래의 기원은 굿이라기보다 노동이다<sup>27)</sup>는 反論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아—”, “하—”와 같은 의미없는 소리가 民謠의 원형이라 볼 때, 단순한 遊戱에서 기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文學과 音樂과 動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는지 音樂과 動作이 先行되고 文學的 要素가 뒤에 添加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前後繼起說이 유력하다. 文學이 他藝術보다 文明的인 所以 (高, p.24)이며 無意味한 辭說의 반복적 형태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오다가 類似音 反復의 象證을 피하여 그 사이사이에 적당한 의미 있는 辭說이 끼어 들었다 (任究, p.306)고 하겠다.

26)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0. p. 165.

27) ———, 〈한국 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p. 37.

前述한 것처럼 의미없는 소리가 先行되었다고 할 때, 純粹民謠는 勞動民謠보다 먼저 이루어졌다<sup>28)</sup>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 마. 分類論

유형 분류 방법으로 우선 형태에 의한 분류를 들 수 있다. 대표적 유형으로 高晶玉은 “△□△□ ○○△□”(高, p.501)를 들고 있으며, “A A × A × A × B …” 등처럼 任東權은 다섯 유형, 鄭東華는 열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鄭, pp.74-86) 形式的 특질을 분석한 이러한 유형 분류는 美學的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분석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분류는 民謠 研究의 入門이자 결론이라 하겠다. 앞에서 든 世宗祖 朴煥은 上訴文에서 민요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人倫世教에 관한 것은 正風으로 하고 綱常에 부끄러운 것은 變風으로 하자는 것이다.<sup>29)</sup> <詩經>의 風·雅頌과 대비되는 것으로, 분류법의 과학성을 떠나서,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朝鮮口傳民謠集> (金素雲), <朝鮮民謠選> (林和), <朝鮮民謠集成> (金思燁 外) 등에서는 民謠 분류는 하였으나 분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高晶玉은 열한 가지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자기의 분류는 내용, 歌者の 性과 年齡, 노래와 민족 생활의 결합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高, pp.96-98) 열한 가지 기준은 內容, 歌者の 性·年齡, 歌唱 地域, 노래의 時代性(新古), 노래와 民族生活의 結合, 노래의 形態, 曲調 또는 名稱, 長短(길이), 韻律, 表現上的 傾向 등이다.(高, pp.97-98) 그리고 어떠한 內容의 노

28) 任東權, “韓國口碑文學史”, <韓國文化史大系>5,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67. p.707.

29) 如此然後 擇其歌曲之詞 其中君臣道合 父子思深 夫婦節義 兄弟友愛 朋友諸信 賓主同歡 發於性情之正 有關於人倫世教者 以爲正風 其男女相悅 淫遊恣惡 違欲無恥 有愧於綱常者 以爲變風(<世宗實錄> 卷四七, 十二年 庚戌 二月)

래를, 누가, 무엇을 할 때 부르는가를 살펴(高, pp.101-102)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대체로 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任東權은 唱者의 年齡·性別, 主題 및 內容, 歌唱 過程의 세 조건을(任究, pp.43), 張德順은 機能, 歌唱 方式, 唱曲, 律格, 장르, 唱者, 時代, 地域의 여덟 가지 조건별 분류를(張, p.82), 鄭東華는 時代, 年齡 및 性別, 機能, 內容 및 題目的 분류 단계와 機能, 構成, 主題, 歌唱, 主題 및 職能上的 複合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鄭, p.143), 대체로 내용과 기능별 분류를 가장 기본적 기준으로 보고 있다.(鄭, 수頁, 金榮, p.14)

설명을 위해 실제의 분류를 큰 항목만 잠시 소개하겠다.

- 一. 男謠: 1. 勞動謠 2. 打鈴 3. 兩班노래 4. 道德歌 5. 醉樂歌 6. 近代謠 7. 民間信仰歌 8. 輓歌 9. 警世歌 10. 生活歌 11. 政治謠 12. 傳說謠 13. 語戲謠 14. 遊戲謠 15. 情歌 16. 童男童女問答體謠
- 二. 婦謠: 1. 시집살이 노래 2. 作業謠 3. 母女愛戀歌 4. 女歎歌 5. 烈女歌 6. 꽃노래 7. 童女謠(高, pp.495-496)

- 一. 機能: 勞動謠, 儀式謠, 遊戲謠, 非機能謠
- 二. 歌唱方式: 先後唱, 交換唱, 獨唱(齊唱)
- 三. 唱曲: 歌唱民謠, 吟詠民謠
- 四. 律格: 1音步格民謠, 2音步格民謠, 3音步格民謠, 4音步格民謠, 分聯體民謠, 連續體民謠
- 五. 장르: 敎述民謠, 抒情民謠, 叙事民謠, 戲曲民謠
- 六. 唱者: 男謠, 婦謠, 童謠
- 七. 時代: 옛날노래, 중년소리(近代謠)
- 八. 地域: 各道別로 나눈다.  
(張, pp.82-83)

- 一. 民謠: 가. 勞動謠
  - A. 男性的 勞動謠 B. 女性的 勞動謠
- 나. 信仰性謠
  - A. 佛敎謠 B. 民間信仰謠
- 다. 內房謠

A. 女歎謠 B. 시집살이謠 C. 暇遊謠 D. 生活謠 E. 季節謠

라. 情戀謠

A. 問答謠 B. 情愛謠 C. 情謠

마. 挽歌

바. 打令

A. 짐승打令 B. 鳥類打令 C. 飲食打令 D. 花草打令 E. 其他의  
打令

사. 說話謠

二. 童謠 : 가. 動物謠

A. 鳥類謠 B. 짐승謠 C. 昆蟲謠 D. 魚類謠

나. 植物謠

A. 나무노래 B. 풀노래 C. 採菜謠

다. 戀慕謠

라. 愛撫, 자장謠

A. 자장謠 B. 愛撫謠

마. 情緒謠

A. 家族謠 B. 感傷謠 C. 情婚謠

바. 自然謠

사. 諷笑謠

아. 語戲謠

자. 數謠

차. 遊戲謠

카. 其他謠

(任究 pp. 40 - 52.)

I. 勞動謠篇 : 一. 맷돌, 방아 노래 二. 해녀의 노래 三. 김매는 노래 四. 타작  
노래 五. 망건 노래 六. 양태 노래 七. 밭밭는 노래 八. 돌베는  
노래 九. 밀치 후리는 노래 十. 기타 노동요

II. 打令類篇 : 一. 옛타령 二. 잠요 三. 만가

III. 童謠篇 : 一. 동요 二. 자장가 三. 어회요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cf. 1) 勞動謠

(1) 農業謠 (2) 製粉謠 (3) 漁業謠 (4) 伐採謠 (5) 冠網謠 (6) 雜役謠

(以下 非勞動謠)



2) 儀式謠

3) 타령類

(1) 옛타령 [2] 雜謠

4) 童謠

(金榮, pp. 25-26, 濟州島 民謠에 限정한 分類임)

○ 複合的 樣式(民謠)

{ 狹務의 民謠 — 純粹民謠(노동요, 情戀謠, 輓歌, 成造歌, 打令), 童謠

{ 廣義의 民謠 — 巫歌, 原始歌謠, 俗歌(雜歌, 노래가락)

(鄭, p. 14)

(1) 機能上 分類

① 機能謠 — 勞動謠, 儀式謠(輓歌, 成造歌, 佛教謠, 民間信仰謠), 遊戲謠(무용 및 놀이 수반)

② 非機能謠 — 純粹歌唱民謠(情戀謠, 打令)

(2) 構成上 分類

① 抒情民謠 ② 敘事民謠 ③ 戲曲民謠 ④ 敘述民謠

(3) 主題別 分類

① 情戀謠 ② 嘆謠 ③ 勞動謠 ④ 信仰謠(宗教的 民謠) ⑤ 情·義謠 ⑥ 諧謔謠 ⑦ 享樂謠

(4) 歌唱上 分類

① 歌唱民謠 ② 吟詠民謠(誦書 포함)

(5) 主題 및 機能上의 복합적 分類

① 勞動謠 ② 情戀謠 ③ 女嘆謠 ④ 情·義謠 ⑤ 輓歌 ⑥ 옛소리 ⑦ 成造歌 ⑧ 打令 ⑨ 娛樂謠 ⑩ 信仰謠 ⑪ 俗歌

(鄭, pp. 143-145)

8. 口碑傳承

81. 民謠

811. 男謠: 1. 勞動謠 2. 儀式謠 3. 打令 4. 說話謠 5. 語彙謠 6. 數謠 7. 問答謠 8. 諷謠

812. 婦謠: 1. 勞動謠 2. 生活謠

813. 童謠: 1. 諷笑謠 2. 놀이謠 3. 語彙謠 4. 辱說謠

814. 巫歌: 1. 迎神歌 2. 享宴祈願歌 3. 敘事巫歌 4. 神意問答歌 5. 逐神歌 6. 送神謠

- 補 81. A. 立唱 2. 座唱  
 81. B. 1. 動作同伴 2. 無動作  
 81. C. 1. 自己伴奏 2. 他伴奏  
       3. 無伴奏  
 81. D. 1. 合唱  
 (文化人類學會)<sup>30)</sup>

그의 主題別(〈朝鮮民謠選〉), 地域別(〈朝鮮口傳民謠集〉, 〈朝鮮의 民謠〉), 唱者別(“朝鮮民謠의 分類”<sup>31)</sup>), 여기에 年齡과 性別까지 감안한 분류(〈朝鮮民謠集成〉), 장르別 分類(〈敘事民謠研究〉) 등을 들 수 있다.

前述한 대로 高晶玉의 分類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더 많은 民謠가 蒐集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를 놓고 分類할 수밖에 없다. ‘分類’는 단순히 나누어서 묶음 짓는 것이 아니고 나뉜 것들의 同質性을 說明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科學적인 分類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sup>32)</sup> ‘分類’의 本質을 엄두에 두면서 문제를 제기해 보겠다.

民謠는 複合적 주제가 많아 分類에서 任意性이나 恣意性이 介在될 여지가 많다. 또 “機能, 唱曲, 歌詞의 三要素의 상호 關係가 반드시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機能이 없는 民謠도 있고 (노랫가락, 도라지, 天安삼거리 등) 歌詞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변모되기도 하고 새로이 創作된 歌詞가 混入되기도 한다.”<sup>33)</sup> 그러나 일관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

30) 韓國文化人類學會, “韓國民俗資料分類表”(民謠部分), 〈文化人類學〉4輯, 1971.

31) 高濬民, “朝鮮民謠의 分類”, 〈春秋〉, 1941. 4., 崔喆·薛盛環 編, 前掲書, p. 201.

32) G. Malcom Laws, Jr., Narrative American Balladry, Philadelphia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4, p. 11. 鄭, p. 141. 再引.

33) 金大幸, 〈韓國詩의 傳統 研究〉, 開文社, 1980, p. 14.

는 분류에서는 辭說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해서 大分類로 機能, 小分類로 唱者, 실제 작업인 그 下位分類는 辭說을 중심으로 하되, 唱曲에 의한 것은 실제의 작업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文學的 意義가 크지 않은 일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小分類에서조차 機能과 辭說을 混合(綜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打令은 曲이 특수하게 정해져서 전해오는 旋律謠이다.”<sup>34)</sup> 그러므로 打令이 예컨대 勞動謠와 같은 차원의 분류에 들어가는지 의문이다.

民謠만을 複合的 樣式으로 본다면 民謠를 鄉歌(詩歌), 小說, 隨筆, 演劇과 같은 차원의 독립 장르로 설정하는 것<sup>35)</sup>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지면 판소리도 대표적인 복합적 양식이며, 民謠는 詩歌, 小說같은 敘事, 抒情의 하위 분류이기 때문이다. 또 한 지역을 위주로 한 분류(金榮, pp.25-26)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분류(金武, pp.50-52)는 이 성과가 民謠 전체에 적용될 수 있거나 民謠 전체의 분류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民謠 資料가 계속 發掘되는 상황이므로 “文化人類學會”의 분류처럼 이어질 수 있는 공백을 두어야 하는데, 이 점은 說話 등의 口碑文學 分類에도 두루 해당되는 것이다.

앞에 든 예를 바탕으로 民謠 分類의 큰 혼란을 지적해 보겠다.

첫째, 民謠와 童謠를 구분·분리하는 것이다. 民謠 분류에서 童謠를 제외하거나(高) 民謠와 童謠를 같은 次元에 두는 것은(任究) 再考해야 할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민요의 한 모퉁이에 물아 넣어 庶子格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민요와는 바탕이 다른 동요의 특성을 살려 分家獨立시킴이 옳

34) 全上, p.22.

35) 우리어문학회, <國語國文學要講>, 大學出版社.(高晶玉의 分類)

張德順, <國文學通論>, 前掲書, pp.38-39. 再引.

다<sup>36)</sup> 면서도 濟州島 民謠를 勞動謠·타령類·童謠로 三大分한 것<sup>37)</sup>은 童謠를 分家獨立시키는 어려움을 反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앞에서 童謠가 民謠에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실제 작업에서 分家獨立을 시키면 童謠의 位相을 정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其他謠(任究)를 둔 일이다. 장르 구분에서 ‘其他’ 또는 ‘混合’을 두는 것은 동질성 해명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니와, 심하게 말하면 분류의 의의를 상실한다고까지 하겠다.

셋째, 기준의 일관성 문제다. 기준의 綜合이라고 하는 것은 大·小項目에 따라 다른 적용을 말하는 것이지 小項目 분류에서 內容, 唱者, 機能 등을 섞으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남녀 공통적 가창의 民謠를 男謠에 넣은 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謙謠를 男謠에 포함한 것도 한번 더 살펴 봐야 할 것이다. 童女謠를 따로 設定하는 것도 별 의의가 없다.

넷째, 民謠의 概念·範疇 문제다. 이 점이 해결되어야 좀더 合理的인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巫歌를 따로 設定하여 民謠의 下位 개념으로 둔 예(文化人類學會)도 이와 관련된다. 앞에서 舉論한 바 있는데, 辭說時調, 歌辭와의 관계도 정립해야 할 것이다. “民族精神의 時調 形式에의 侵寇”(高, p.56)라 하며 “普通 이런 것을 그 길이에만 置重하여 長時調 其他의 名稱을 使用하나 其實은 이런 노래들은 이미 時調가 아닌 것으로, 나는 이를 「破型노래」라 부른다”(全頁)하여 “民謠精神의 勝利”(高, p.58)를 말하나, 民謠的 雰圍氣만을 보고 民謠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 飛躍적이다. 時調的 題材가 安逸·風流만이 아님은 상식적이다. 雜歌가 民謠의 하위 분류인가 하

36) 金榮敦, “童謠”, <韓國民俗大觀>VI, 高麗大 民族文化 研究所, 1982, p. 354 - 395 金榮, p. 15. 再引.

37)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前掲書.

는 것도 의문이다. 또 ‘成造歌’가 어떻게 勞動謠와 같은 차원에서 분류(鄭)될 수 있겠는가?

다섯째, 分類 題名과 謠名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女歎謠’는 워낙 범위가 넓은 것이어서 ‘시집살이노래’와 같은 항목으로 설 수 있을지(高) 문제가 있다. 분류표는 一目瞭然해야 하므로 分類 題名을 붙이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情愛謠’, ‘情謠’(任究), ‘情戀謠’, ‘情·義謠’(鄭) 등은 첫눈에 그 차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生活謠’(任究)처럼 막연한 分類名은 명확한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謠名을 붙임에는 現地の 謠名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力說하고자 하는 것은 民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아 巫歌, 佛歌, 雜歌 등을 포함하는 일을 止揚해야 한다는 점이다. 鄉歌, 辭說時調, 歌辭까지 民謠의 범주에 넣지 말고 가장 가까운 분야로 과감히 돌려 줘야 될 것이다.

## 바. 律 格 論

律格論의 대상은 音數律, 音步律, 句數律, 後斂句, 反復律 등의 모든 韻律 構成의 要素(鄭, p.21)가 되겠으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音數律, 音步律이다.

四·四, 三·三, 五·五, 六·四(三·三·四), 四·五調와 不整調로 나누어 四音節이 중심이고 變數로 三 또는 五의 振幅을 인정(高, pp.57-64)하고 있는 研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任究, p.243), 四音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기본형이라는 것이다.<sup>38)</sup>(鄭, pp.22-23) 또 三音을 傳統 韻律로 보고, 漢文化의 영향에서 변질된 것이 四音이라는 보고 있기도 하다.<sup>39)</sup>

38) 趙東一, 〈叙事民謠研究〉, 前掲書, p.97.

39) 鄭炳昱, 〈한국고전시가론〉, 新丘文化社, 1979, p.34.

(高, p.56)

音數律로는 律格의 특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音步律이 제기되어<sup>40)</sup> ‘모든 音節의 等時性’이라는 점에서 “우리 韓國語 律文 測定을 爲한 우리들의 言語는 끝내 어떻든 均等音들의 連續 群속마냥 파악”<sup>41)</sup>함이 낮겠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音步律이 音數律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음절수가 다르더라도 시간적 길이는 같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론을 들지 않더라도 時調唱을 상기하면 수궁이 같 것이다. 따라서 음절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우리 民謠에는 一·二·三·四音步格의 類型이 있는데, 통계자료나 民謠 形態의 주종이 並列 構造인 점을 볼 때 二音步格이 基本構造인 듯하다.<sup>42)</sup> (鄭, pp.39-40) 그러나 四音步格이 가장 흔하다(張, p.93)는 주장도 있으며, 音步 자체에 流動性이 있으므로 좀더 考究해 봐야 할 문제다. 添言하면, 統計는 部分的인 관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民謠 各篇의 發生 時期를 推定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것을 統計의 對象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 사. 韓國 民謠의 特質

形式的 특질은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내용적 특질을 살펴 보겠다. 高晶玉은 婦謠의 量的·質的 優勢, 豊富한 諧謔性, 風流를 解하는 점, 儒教 教理의 浸潤, 庶民의 支配階級에 對한 順從性과 女性의 男性에 對한 服從性的

40) 鄭炳昱. “古詩歌韻律論序說”, <외솔최현배선생환갑기념논문집>, 思想界社, 1954.

李能雨. “字數考(音數律法)代案.” <論文集> (人文·社會系) 7輯, 서울大學校, 1958. 等

41) 李能雨, 同上, p.209.

42) 金大幸, 前掲書, pp.20-92.

規範化, 無常醉樂의 傾向, 生活苦의 全面的 侵蝕(高, pp.497-500) 등 일곱 가지를 들고, 其他 特質로 鄉土의 多樣性이 적은 점과 舞蹈謠의 稀貴(高, pp.504-505)를 지적하고 있다. 任東權은 婦謠의 質的 優勢, 農歌의 豐艷, 諧謔性 豐富, 儒敎的 順從性(任究, p.227) 등 네 가지를 들면서, 民謠에 나타난 民族性으로 諦念, 樂天性, 素朴性, 道義性, 遊墮性, 信仰性, 宿命性(任究, p.181) 등 여덟 가지를 꼽고 있다. 鄭東華는 韓國 民謠에 나타난 思想을 浪漫思想, 平和愛護思想, 宿命思想, 虛無思想, 忠孝思想(儒敎思想), 巫覡思想, 佛敎思想, 道敎思想으로 나누어 살피고(鄭, pp.117-127) 樂天性, 消極性, 順從性, 忍耐性(근기), 은근성, 純朴性, 情·義性(情誼와 義理性), 享樂性, 勤勉性 등 아홉 가지를 民謠에 나타난 民族性으로 들고 있다. (鄭, pp.127-140) 張德順은 民謠에 나타난 民衆意識으로 生産에서 오는, 靜觀的인 休息의 즐거움이 아닌, 사는 보람으로 가득 찬 活動的이고 積極的인 즐거움, 道德律에 끝까지 구애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生活, 運命論에 치우치지 않은 現實主義, 勞動의 괴로움, 시집살이 괴로움, 苦難을 해결하려는 意志, 苦難 克服의 批判精神, 遊興的이고 頹廢的인 情緒(‘노랫가락’처럼 日帝下의 虛脫感 표현), 抗日意識 등 여러가지를 들고 있다. (張, pp.106-111, 筆者 要約) 제주도 노동요에 두드러진 島民意識으로는 忍苦·不屈意識, 自彊·力行意識, 自主·守分을 들며 이를 한마디로 自彊不息意識이라 요약한 연구(金榮, pp. 124-137)도 있다.

民謠를 대하는 觀點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검토 대상으로 한 민요에 따라 抽出한 특성도 달라질 것이며 이는 나아가 史觀과도 연관된다. 韓國 民謠의 주류를 悲哀的이라고 보는 것<sup>43)</sup>이 일반적인데, 우리 民族이 겪어온 歷史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니 豐富한 諧謔의 裏面에 깔린 悲哀를 간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이는 進取性, 積極性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民謠에 대한 蒐集·研究가 1910년

43)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前掲書, p. 164.

대부터야 조금씩 행해졌고<sup>44)</sup> 그나마 植民統治의 수단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享樂의 內容이 많이 蒐集되고 遊樂의이라는 觀點이 강조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高橋亨같은 日人이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享樂性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노랫가락’은 日帝의 強占이란 時代的 狀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 아. 現代의 民謠

高晶玉은 “民謠는 劇的 民謠, 歌辭的 民謠, 純粹民謠, 童謠로 分類할 수 있으며 여기에 現代에의 關心이 要請된다면 流行歌, 創作新民謠 등이 追加될 것”(高, p.43)이라면서 現代의 民謠에 關係 일찍부터 관심을 보였다.

대개 日帝를 비판하거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노래나 해방 후의 정세를 나타낸 것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다.

新作路 복판에 하이야가 달리고  
하이야 속에는 젊은 년놈 노라난다  
나제 나제나 밤에 밤에나 짝사랑이로구나(任史. p.256)

日本놈 일어난다 美國을 믿지 말고  
쓰聯에 속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하라(任史. p.259)

金岸曙, 金素月, 朴木月의 民謠的인 詩, 尹石重의 童謠는 創作民謠의 發生을 示唆해 주고 있지만(cf. 任史, pp.237-241), 本項에서 言及하려는 것은 現今의 大衆歌謠에 關係서다. 지금 史的인 考察을 하려 함은 過欲이지만 大衆歌謠를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옛부터 전해 오던 노래가 아니더라도, 널리 불리게 되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民謠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 ‘新아리랑’ 처럼 원래의 곡조에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경우도 많다. 요즘의

44) 1912年, 朝鮮總督府 調査.



“노가바” 모임도 주목할 대상이라고 본다. 一部 운동권에서 부르던 소위 “運動歌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감춰졌거나 또는 알려졌거나를 불문하고 시일이 지나면 民謠로 굳어질 노래가 상당히 있다는 점, 널리 불려지는 改詞曲이 있다는 점은 주목에 값한다. 民謠 採集時에도 불려지는 階層과 地域에 유의하면서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자. 民謠史

지금까지 살핀 各論은 ‘史’ 敘述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모든 研究 成果는 ‘史’에 종합되고 反映되며 그 決算·終着點이 바로 ‘史’이기 때문이다. ‘史’ 敘述은 橫으로는 類型 分類, 從으로는 時代區分이 完結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제 民謠史 敘述에서 엄두에 두었으면 하는 사항을 批判的 觀點에서 論議해 보겠다.<sup>45)</sup>

먼저 民謠史 成立의 妥當性 與否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民謠史는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口碑文學을 포함한 모든 文學은 一回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同代의 他 장르에 或은 後代에 直·間接的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民謠史는 성립되고 또한 이를 記述·定立해야 할 것이다. 다만 口傳되는 民謠의 屬性上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이 극소수인데다가 그나마 문자 정착 이전의 노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積層文學의 특수성을 ‘史’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 들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民謠 발생 시기와 기록(정착) 연대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英雄의 一代記’를 통해 고소설과 현대 소설의 맥락을 검증하듯, “예컨대 ‘시집살이謠’를 대상으로 辭說이나 唱曲의 변모를 추적하거나 二音

45) 國文學史 敘述에 관해서는 薛盛璟님의 示唆에 힘입은 바 컸음을 밝혀둔다.

步(또는 三·四音步) 民謠의 변화 과정을 통해 그 변천 과정을 究明하는 등의 연구는 ‘史’ 敍述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民謠史와 國文學史와의 관계 설정이다. “文學이 없었던 때에도 民謠는 있었으므로 國文學史보다는 民謠史가 先行”(任史, p.13)한다는 견해는 口碑文學은 國文學史와 별개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지금 거의 拂拭된 견해지만, 民謠史는 國文學史의 한 부문에 지나지 않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文字 有無가 國文學史 敍述의 걸림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全史와 個別史와의 관계와 연관된다.

民謠 자체만을 가지고 ‘史’를 敍述하려 하지 말고 다른 장르와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全史의 큰 테두리 안에서 論해야 한다. 時代區分도 이와 마찬가지로 물론이다.

‘史’ 敍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史觀이다. 史觀에는 民族主義 史觀을 비롯한 여러 견해가 있으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民謠의 역사는 지속적이나 단절적이나 하는 본질적 문제와 基層民衆의 노래인 民謠가 상층부의 문학 형식과 내용을 先導했는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영향을 주었는가 또는 民謠가 一方的인 영향을 받았는가 아니면 서로 완전한 別個로 존재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또 口碑文學을 포함한 文學을 역사의 추진력으로 보는가 아니면 文學은 단순히 시대를 反映한다고 보는가에 따라 敍述 方向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民謠史 敍述에는 ‘基層文學의 葛藤과 克服’이라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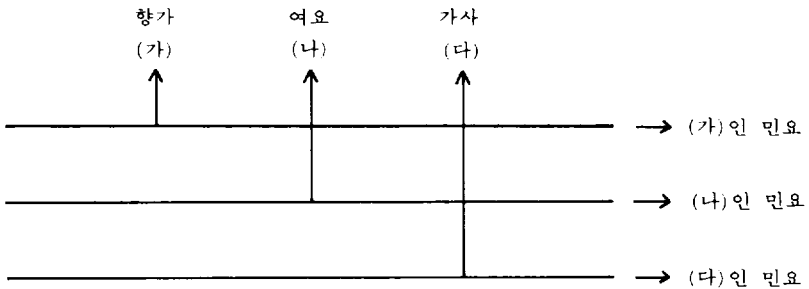
이는 자연히 民謠의 史的 위치와 결부된다. 民謠는 과연 “서민 문학의 王座的 위치”(鄭, p.157)에 있다 할 만하고, 妓女와 廣大의 문학 역시 우리 문학의 寶庫라 하겠다. 그러나 民謠만이 民衆의 感情을 表出하고 있지는

---

46) 金烈圭, “民謠의 傳記의 類型,”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一潮閣, 1971.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10輯,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1971. 等.

않으며, 民衆과 密接하다 해서 그것이 文學的으로 우수하다는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民謠에 대한 國粹的·盲目的이라고까지 할 만한 감정을 넘어 객관적 위치에서의 검증이 요구된다.

民謠의 史的 위치와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은 상승 또는 하강문화재설이다. 趙東一은 다음 도표를 제시하며 상승문화재설을 지지하고 있다.<sup>47)</sup>



상층의 시가가 민요에 영향을 미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시가와 민요의 기본적인 관계는 민요의 형식을 일단 받아들이면서 시가가 성립된 것<sup>48)</sup>이며 (가), (나), (다)인 민요가 원래부터 병존하다가 문학사의 일정한 시기에 그 중 어느 것이 상층의 시가로 상승했다<sup>49)</sup>고 하는 주장인데 필자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런데 이는 民謠 中 우수한 작품이 다른 장르로 上昇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장르의 바탕이 되었다는 말로 해석하여 民謠와 다른 장르와의 성격을 대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民謠는 下級文學·低級文學이 아니며, 民謠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겠다.

47) 조동일, <한국 시가의 전통과 율격>, 前掲書, p. 36.

48) 同上, p. 37.

49) 同上.

그리고 특정 지역의 民謠 연구 성과<sup>50)</sup>를 포용해야 할 것이며, 예컨대 ‘嶺南士林’, ‘湖南歌壇’처럼 일정 지역의 民謠 연구를 통한 地方民謠圈을 설정하여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民謠가 文子로 기록된 것은 高麗 中期 이후라 하겠는데 그 후에도 간혹 기록되었으나 漢文으로 표기되었다. 口傳되는 것이 民謠의 특성이므로 옛 문헌에 기록된 民謠는 오히려 주변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民謠의 評釋 作業이 先行된 뒤에야 民謠의 分類나 時代推定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면 時代區分에 관한 실제 작업을 살펴 보겠다.

1. 三國時代 以前の 民謠
2. 三國時代의 民謠
3. 高麗時代의 民謠
4. 李朝時代의 民謠
  - ① 世宗祖
  - ② 世祖祖
  - ③ 成宗祖

---

50) 특정 지역의 民謠에 관한 연구 성과 중 두드러진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成均館大 國文科, 〈安東文化圈學術調查報告書〉, 成均館大, 1967.

秦聖麒, 〈南國의 民謠〉,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鄭東華, “楊平(抱川·安城·龍仁·驪州·利川·漣川)地方의 民謠攷”, 〈畿甸文化研究〉Ⅲ, V, VI, VII, VIII, IX, X, 仁川敎大, 1973-1979.

趙東一, 〈경북민요〉, 螢雪出版社, 1977.

呂榮澤, 〈울릉도의 傳說·民謠〉, 正音社, 1978.

崔來沃, 〈전북민요〉, 螢雪出版社, 1979.

徐元燮, 前掲書.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上〉, 前掲書.

——,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前掲書

姜騰鶴, 〈旌善 아라리의 研究〉, 集文堂, 1988. 等.

- ④ 中宗祖
- ⑤ 高宗祖
- 5. 現代民謠
  - ① 日帝時代의 民謠
  - ② 8·15解放 以後의 民謠  
(任史, pp. 17-257)

王朝別 區分인데 朝鮮朝의 民謠(대체로 讖謠)가 많이 전해지는 時期를 特記하였다.

- I. 古代民謠 〈生成期〉(原始時代-新羅末 10세기)
  - 1. 原始民謠 〈形成期〉(原始時代-6세기)  
原始時代-鄉歌(佛敎 및 漢字가 輸入되어 文學作品에 實用되기 이전)
  - 2. 三國時代의 民謠 〈成長期〉(7-10세기)  
鄉歌 곧 佛敎 및 漢字 輸入後-新羅末
- II. 中古民謠 〈爛熟期〉(10-15세기)  
高麗建國-한글 創制
- III. 近古民謠 〈隆盛期〉(15-19세기)  
한글 創制-甲午更張
  - 1. 民謠의 沈滯時代(15-16세기)  
世宗-壬亂
  - 2. 民謠 降盛時代(16-19세기)  
壬亂後-甲午更張
- IV. 現代民謠(19-20세기)  
甲午更張-현재
  - 1. 反抗民謠 〈衰退期〉(19-20세기)  
甲午更張-해방
  - 2. 해방 후 民謠(20세기)  
해방-6·25
  - 3. 6·25 후의 民謠  
(鄭. p. 155)

王朝와 歷史의 事件을 綜合한 구분으로 世紀別로 가르고 있다. 고려 시대까지는 民謠의 발전 양상을 기준 삼고, 이 기간 동안 民謠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漢字의 輸入時期를 한 區劃點으로 보았으며 民謠에 借用된 ‘鄉歌’를 기준으로 삼아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를 區分하였다. (鄭, p.152)

時代區分은 당시 사회 구조와 문학 담당층의 변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사실 등을 조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또 총체적 역사와 개별적인 문학사 그리고 인접 학문(국어사, 음악사 등)과의 상호 관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用語 문제를 들 수 있다. ‘中古’, ‘近古’는 다 ‘古代’에 포함되는 ‘古代’의 하위 분류이므로 ‘中古’, ‘近古’하면 그 이전은 ‘上古’가 되어야 한다. 甲午更張까지 ‘古代’였는가 의문이며 ‘近古’ 다음에 바로 ‘現代’가 온 것도 어색하다. 이는 用語 개념의 문제와 用語 선택의 신중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民謠는 특히 시대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한 王朝의 變化 뿐 아니라 激變 時期의 事件을 구획 삼는 것이 좋을 듯하다. 壬亂, 東學革命같은 事件은 文學의 다른 장르 외에도 政治·經濟 등의 他分野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다.

民謠는 口傳되는 것이어서 文字로 記錄된 것이 극소수이므로 한글 창제 자체는 民謠史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록되어 전하는 것을 볼 때 차라리 世宗祖, 世祖祖 들로 구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글 창제가 민요 쇠퇴의 직접적 요인(cf. 鄭, p.156)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한글 문학 창작의 시발점이라는 점, 기록문학과 구전문학은 상보적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장르와의 균형을 고려할 때 한글 창제를 구획점으로 삼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時代區分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近代’의 설정이다. ‘近代’의 개념이나 起點, 成立與否에 관해서는 論難이 분분한 실정이다.<sup>51)</sup> 甲午更張부터 現

대의 民謠로 본 鄭東華는 이 때를 外來文化의 流入으로 인한 民謠의 衰退期 (cf. 鄭, pp.156-157)라고 하고 있으나, 文學史的으로 甲午更張 자체는 큰 의의가 없다고 본다. 모든 가설은 현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있고 國文學史를 主體的 展開의 觀點으로 대해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民謠를 포함한 文學의 변천을 생각해 보면, 甲午更張보다는 적어도 19C 중반으로 끌어 올려 ‘近代’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民謠史에서는 ‘解放’ 못지 않게 ‘韓日合邦’도 한 구획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Ⅲ. 結 言

지금까지 研究方法, 用語, 概念·範疇, 發生, 分類, 律格, 特質, 現代的 民謠, 民謠史 등 아홉 분야에 걸쳐, 〈朝鮮民謠研究〉(高晶玉)를 중심으로, 研究史的 檢討를 하면서 民謠 研究의 諸問題를 점검해 보았다.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民族文化의 保全策이나 殘存文化의 研究라는 民謠 研究의 視覺을 넘어 民謠 自體의 문예미를 추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文藝理論의 定立이 요구된다. 나아가 民謠를 통한 지배 세력, 비판 세력, 잠재 세력의 상이한 세계관 파악과 그 의미 해명에까지 研究가 深化되어야 할 것이다.

‘歌, 謠, 노래, 소리’에서부터 ‘純粹民謠, 童謠, 先後唱, 交換唱, 後斂, 律格’ 등에 이르기까지 用語의 精確한 개념 규정과 用語 使用의 統一이 필요하다. ‘謠(노래)’가 일반적이지만 필자는 ‘소리’가 더 타당한 用語라고 생각한다. ‘소리’는 勞動과 관계 깊은 民謠의 개념에 더욱 가깝고 現地의 謠

---

51) ‘近代’에 관한 여러 논점은 본고에서의 목적이 아니므로 할애한다.

名이 대개 ‘소리’라는 점에서 遊戲性·娛樂性을 나타내는 ‘노래’보다 좋을 듯하다. 그리고 ‘斂’은 ‘初斂, 中斂, 後斂’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고 ‘韻律’은 ‘律格’으로 써야 정확한 用語다.

그리고 民謠는 被侵略民族의 설움과 아울러 被侵奪階層의 설움을 나타내고 있다.

上代歌謠를 모두 民謠에 편입하는 것은, 民謠인가, 民謠的 要素가 있는가, 民謠의 範疇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에서 再考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歌名, 作者名부터가 說話의인, 鄉歌는 그렇다 하더라도 朝鮮朝 初·中葉에 記錄된 麗謠를 民謠로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巫歌, 佛歌, 雜歌 등을 廣義의 民謠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混合의인 장르는 면밀한 검토로 더 가까운 장르에 돌려 주고 民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譚歌는 專門性和 敘事性에서 民謠라 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동들이 成人의 노래를 꼭 그대로 부르지도 않거니와 民謠가 반드시 노동과 결부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童謠를 民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童謠’와 ‘讖謠’는 명확히 구분해서 써야 할 것이다.

民謠 各篇에 따라 다르지만, 民謠는 個人作이며 共同作이라는 折衷說이 타당하며 民謠의 遊戲起源說을 전적으로 排除할 수는 없다.

分類는 綜合의 分類를 하되 文學的인 것을 우선하여 辭說 中心으로 하고 같은 차원의 分類에서는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大分類는 機能, 小分類는 唱者, 실제 작업인 그 下位 分類는 辭說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民謠와 童謠를 분리하는 것은 童謠가 民謠의 下位 概念이라는 점에서, ‘其他謠’를 두는 것은 分類 意義를 상실할 가능성이 짙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律格은 音數律보다 音步律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 民謠의 기본 구조가 몇 音步인지는 더 考究할 사항이다.

韓國 民謠의 特質을 一方的으로 悲哀라고 速斷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사



이사이에 보이는 進取性과 積極性을 놓쳐서는 안된다. ‘享樂性’은 日帝 強占 下의 時代 狀況과 民謠 蒐集의 動機, 過程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흔히 ‘享樂性’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노랫가락’은 日帝 때 盛行한 노래이다. 作者 不明이든 아니든, 원래의 곡조에 改詞만 한 것이든 간에 일반화되어 널리 불리는 노래에는, 民謠 採集時에도, 그 계층과 지역에 유의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史’는 모든 研究의 결산이요, 終着點이다. 民謠史 敘述은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民謠史는 가능한가 하는 民謠史 성립의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積層文學의 特殊性을 어떻게 記述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民謠 발생 시기와 기록 연대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民謠史와 國文學史, 國文學 全史와 個別史와의 관계 정립이 절실하다. 그리고 史觀의 확립은, 民謠의 역사는 지속적인가 단절적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와 결부되는 先決課題다. 다음은 民謠의 史的 位置에 관해서다. 民謠는 下級·低級文學이 아니며, 文學의 다른 장르에 많은 영향을 주고(극히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바탕이 된 장르다. 그러므로 民謠와 다른 장르를 相對적으로 比較하여 論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民謠 研究 成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民謠가 文字로 記錄된 것은 高麗 中期 以後이며 그나마 극소수이므로, 民謠의 口傳性을 상기할 때, 옛 文獻에 記錄된 民謠는 오히려 주변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접 학문의 역사 또는 총체적 역사와 개별적 문학사와의 상호 관계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의 연구 결과(任史, 鄭)를 볼 때, 用語의 概念과 正確性 그리고 時代區分을 再考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近代’의 개념은 論難이 많은데 그 起點 設定은 文學史 定立을 위해 꼭 중요하다. 民謠史에서도 甲午更張보다는 19 C 中半으로 잡아 ‘近代’를 設定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韓日合邦’은 ‘解放’과 더불어 한 區劃點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假說이든 現象의 精確한 把握을 위해 있는 것이므로 굳이 王朝史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社會的 激動期의 事件을 境界 삼는 것도 한 방안이다. 文學의 다른 장르보다 社會狀況과 밀접한 것이 民謠이므로 王朝의 交替와 激變期 事件을 아울러 감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民謠事典, 民謠分布圖가 만들어지고, 音樂과의 共同研究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다급 필자의 短見을 披瀝하기도 하였으나 뚜렷한 代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문제점들만 나열한 듯싶다. 그러나 일단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여 정리했으니 民謠 研究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摘出한 문제점들에 대해 더 자세한 代案을 제시할 것을 스스로 기약한다.

## 參 考 文 獻

- 〈朝鮮王朝實錄〉（世宗祖）
- 〈星湖先生集說〉（李 翼）
- 高晶玉，〈朝鮮民謠研究〉，首善社，1949.
- 金大幸，〈韓國詩의 傳統 研究〉，開文社，1980.
- 金東旭，〈韓國歌謠의 研究（續）〉，宣明文化社，1975.
- 金武憲，〈한국 노동 민요 연구〉，延世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6.
- 金烈圭，〈韓國民俗과 文學研究〉，一潮閣，1971.
-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 上〉，一潮閣，1965.（1984. 重版）
-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조약돌，1983.
- 金泰坤，“韓國의 學譜（民俗學界）”，大韓日報，1972.11.20 字.
- 徐元燮，〈鬱陵島 民謠와 歌辭〉，螢雪出版社，1982.
- 沈雨晟，“論著를 통해 본 民俗學研究 30 年”，〈讀書生活〉，讀書生活社，1976.2 月號.
- 李能雨，“字數考（音數律法）代案”，〈論文集〉（人文·社會系）7 輯，서울 大學校，1958.
- 李泰極，〈時調概論〉，새글사，1974.
- 任東權，〈韓國民謠集〉 I—VI，東國文化社·集文堂，1961-1981.
- ，〈韓國民謠史〉，文昌社，1964.
- ，“韓國口碑文學史”，〈韓國文化史大系〉5，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1967.
- ，〈韓國民謠研究〉，宣明文化社，1974.

-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 外, 〈口碑文學概說 — 口碑傳承의 韓國文學의 考察 —〉, 一潮閣, 1971.
-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 — 特質과 發達을 中心으로 —〉, 一潮閣, 1981.
- 鄭炳昱, “古詩歌韻律論序說”, 〈외솔 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문집〉, 思想界社, 1954.
- , 〈國文學散藁〉, 新丘文化社, 1960.
- , 〈한국고전시가론〉, 新丘文化社, 1979.
- 鄭在鎬, 〈韓國雜歌全集〉 I—IV, 啓明文化社, 1984.
- 趙東一, 〈敍事民謠研究〉, 啓明大出版部, 1970.
- ,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10輯, 서울大東亞文化研究所, 1971.
- ,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社, 1980.
- , 〈한국 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 趙潤濟,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社, 1958. (初版, 博文書館, 1937.)
- ,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1. (初版, 1963.)
- 周王山, 〈朝鮮民謠概論〉, 東洋푸린트社, 1947.
- 崔喆, 〈향가의 본질과 시적 상상력〉, 새문社, 1983.
- · 薛盛璟 編, 〈민요의 연구〉, 正音社, 1984.
- 韓國文化人類學會, 〈文化人類學〉 4輯, 1971.
- 黃正洙, 〈韓國 政治民謠 研究〉, 延世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